

삼손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

사사기 16:23-31, 사도행전 7:54-60

최정웅 목사님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친히 하시옵소서. 종이 주의 말씀의 심부름을 바로 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마음을 열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독일 집회를 잘 마쳤다. 배영광 집사님은 너무 멀어서 오지는 못했지만, 전화로 안부를 나누고 왔다. 드레스덴이라는 곳은 박근혜 대통령이 가서 남북평화프로세스를 발표했던 곳이다. 예전에는 자유 선언을 했던 유서 깊은 곳이다. 그 도시 시립교향악단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한다. 음악을 하는 전문인들, 그리고 공업 계통의 유학생들이 많았다. 놀랍고 감사한 것은, 미국을 다녀 보면 학생들에게 학비를 너무 많이 받아서 학생들이 어려운데, 유럽에서는 학비를 거의 적게 받는다고 한다. 학비가 적게 들어서, 소프라노 곡진주 양도 거기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왔다. 한국의 전문인들이 가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기도가 많이 필요한 것 같다.

사사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삼손에 이르렀다. 사사 삼손은 우리가 다 잘 아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 나라와 싸우도록 삼손을 택하셨다. 그래서 나실인으로 자라게 하셨다. 나실인은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 바쳐진 사람, 서원한 사람을 가리킨다. 어릴 때부터 머리를 깎지 않고, 독주를 마시지 않는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잘 훈련받은 사람이다. 삼손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엄청난 힘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혼자서 나귀 턱뼈만 가지고도 블레셋 군대 천 명을 쓰러뜨릴 만큼 힘이 센 사람이었다.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무드셀라라면 제일 힘이 센 사람은 삼손이었다. 이 사람이 20년 동안 사사로 있으면서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잘 막았다. 그러면,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자기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전부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이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였다. 그런데 삼손이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잃어버린 것이다. 삼손은 원래 나실인이었다. 머리를 깎지 않았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과 내통한 들릴라에게 미혹되어서, 결국은 여러 차례 속이다가 결국 다 털어놓았다. 그래서 ‘내 힘은 머리에서 나온다’는 말을 듣고, 이 여자가 삼손을 즐겁게 해 준 다음에 깊이 잠드니까 그 틈에 삼손의 머리를 다 밀어 버렸다. 이렇게 해서 삼손이 힘이 다 빠져 버렸다. 머리가 길어서 힘이 나는 게 아니라, 나실인이라는 언약을 붙잡고 있어야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것인데, 이 언약을 놓치니까 아무 힘이 없는 사람이 되어 버렸다. 이렇게 해서 블레셋 사람에게 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노예가 되어 버렸다. 연자뿔들을 돌리는 노예가 되었다. 그래서야 삼손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시간표가 되어서, 블레셋 사람들이 우상에게 영광을 돌리는 잔치를 하면서 삼손을 불러내어 희롱하고 재주를 부리게 했다. 그때 삼손이, ‘하나님여, 나에게 마지막으로 힘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다. 그리고 그 신전의 두 기둥을 붙잡고 밀었는데, 그 신전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그 안에 있던 모든 블레셋 사람과 함께 삼손은 장렬한 최후를 맞게 된다. 이것이 너무 잘 아는 삼손의 이야기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발견해야 할 것은, 삼손에게 왜 하나님이 역사하셨는가 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삼손은 왜 실패했는가 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삼손에게도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현장에도 나타나고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언약을 붙잡는 날이 되기를 축원한다.

1.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 무엇이나 하는 것이다.

생각해 보면 삼손은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사고를 많이 쳤는지 모른다. 처음부터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하겠다고 하면서 부모님 걱정을 많이 시켰다. 그랬다가 블레셋 사람과 다투면서 자기 부인과 그 가족이 다 죽게 되었다. 기생을 찾았다가 블레셋 사람들의 습격을 받기도 했다. 자기 힘을 자랑하면서

사람들을 우습게 생각하다가, 결국은 한 여자에게 사로잡혀서 머리 깎이고 완전히 조롱당하는 노예가 되고 말았다. 이런 부족한 삼손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이유가 무엇인가? 지난 특별새벽기도회 때 나누었던 내용이다.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의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어찌 우리가 이유 없이 세움을 받았겠는가. 좋은 시절, 기운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쓸데없는 것에 힘을 기울인다면, 우리도 같은 실패와 좌절, 절망을 맛보게 될 것이다.

(1) 당연성의 이유를 보라. 이 땅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다.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은 오직 복음, 하나님이 주신 언약밖에는 없다. 다른 길이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받을만한 다른 이들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행:1의 당연성이다.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당연성이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 당연성이다. 하나님은 이 복음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알게 하시려고 피 제사라는 답을 주시고, 언약궤와 성막이라는 답을 주셨다. 지구상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답을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다. 이것이 당연성이다. 이스라엘에게 먼저 주신 이 언약이다. 우리한테도 이것을 주신 것이다.

(2) 두 번째는 필연성의 이유다.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언약을 이어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을 놓치고 블레셋에게 노예가 되어 있는 것이다. 마귀에게 사로잡힌 상태가 되어버린 이 나라를 건져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필연성이다. 필요한 일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말이다. 누군가는 블레셋을 깨뜨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야 한다. 이것이 복음운동이다. 복음운동이 지속될 때만 이것이 가능할데 이것을 잃어버렸으니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다. 이 복음운동이 바로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일이다. 지금 시대에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것을 필연성이라고 한다. 필요한 일을 하셔야 한다는 말이다.

(3) 세 번째 이유가 절대성이다.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할 답은 오직 복음밖에 없다. 이게 당연성이다.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 누군가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일을 해야 한다. 이게 필연성이다. 이 일을 하도록 선택을 받은 사람이 삼손이었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삼손의 수준, 성격,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성령으로 삼손에게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성령충만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막을 수 없다. 이것을 보고 절대성이라고 한다. 우리가 이 복음 회복과 하나님 나라 회복의 언약을 붙잡았다면, 우리에게도 성령충만의 능력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정말 축복받으시기 바란다. 이 언약, 이 이유를 붙잡지만 하면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슈왈(C. Schwab)에 대한 이야기를 몇 번 했다.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에 대한 예화다. 청소부가 하나 들어왔는데, 직업이 없던 사람이 직업을 얻으니까 고마운 것이다. 그래서 회사에 가서 성실하게 그 일을 했다. 당연한 일을 한 것이다. 이것을 너무 잘 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한 시간 전에 출근한 것이다. 그래서 기도하고 회사를 돌아보았다. 당연한 것을 해야 하는데 이 사람이 한 것이다. 저녁에는 한 시간 후에 퇴근했다. 그러면서 필요한 것을 한 것이다. 몇 달이 지났는데, 회장이 보니까 회사가 달라져 있는 것이다. “회사가 깨끗해지고 달라졌는데 왜 그런가?” 수위 보는 사람이 말했다. “슈왈이라는 사람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제대로 하는지 모릅니다.” 1년을 지켜봤는데, 회사가 얼마나 정갈해졌는지 모른다. 그래서 이 사람을 부른 것이다. “청소는 다른 사람이 하게 할테니, 자네는 비서실로 오게.” 그러다가 이 회장이 나이가 들었다. 그래서 슈왈을 부른 것이다. 비서실장이었던 슈왈을 불러서, “이제는 내가 은퇴해야 하니, 자네가 회사를 맡아주게.” 당황한 슈왈이 손을 내저으면서 말했다. “지금까지 다른 말은 다 들었지만 이 말씀만큼은 들을 수 없습니다. 저는 청소부에 불과했던 무식한 사람 아닙니까.” “무슨 전문가가 필요한가? 회계사도 박사도 얼마든지 고용하면 된다. 내가 볼 때 자네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회사를 사랑하고 위하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맡아야 하는 거야.” 그래서 회장이 된 것이다. 이것을 절대성이라고 한다. 당연한 것을 하다 보면 필요한 것이 보이고, 필요한 것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영적인 절대의 일,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여러분,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을 이해하셨는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한 사람만 있어도 바뀌어지게 된다. 요셉 한 사람이 애굽과 세계를 살렸다. 루터 한 사람이 중세 천주교를 바꿔 버렸다. 우리 교회가 다시 그렇게 천주교 식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밀의 사람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한다. 다른 사람이 다 나를 지켜보고 있는 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사람도 다 보고 있다.

2. 두 번째 생각해야 할 것은, 삼손이 왜 실패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게 쓰임받던 삼손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 한때 쓰임을 받았지만, 개인적으로 두 눈이 뽑히고 노예가 되는 비참한 상황까지 가게 되었다. 나실인 삼손을 향해서, “우리 신이 저 놈을 이겼다!” 하고 환호성을 지르고 삼손을 조롱하는 것이다. 마지막에야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원수는 갚았지만 자기도 거기에서 죽은 것이다. 우리가 그 정도로 끝나면 되겠는가. 자기 할 일도 제대로 못 하면서 무슨 원수가 그렇게 많은가. 우리는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삼손의 실패에서 중요한 답을 얻어야 되겠다. 이번에 유럽집회를 하는데 현금을 안 해도 된다고 하는 것이다. 한 장로님이 비용을 다 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은혜 받으시면 된다는 것이다. 그런 것이 당연히 해야 할 일, 필요한 일이 아니겠는가? 자, 보라. 이 부분에 대한 해답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내용이다.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것이다.

(1) 각인이 창3장, 6장, 11장으로 되어 있으니, 근본적인 상태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육신적으로 가는 것이다. 자기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의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내가 볼 때는 대단히 성공한 사람도 없다. 대단히 잘난 사람도 없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무릎꿇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 없다. 복음 가지고 있는데 불신자 상태처럼 살다가 실패하면 안 되지 않나. 이것이 삼손의 상태였다. 삼손을 살펴보면 피 제사라는 원색 복음이 각인된 흔적이 없다. 이때는 그리스도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을 때니까, 실제 언약이 피 제사다. 그런데 삼손이 피 제사를 드렸다는 말이 없다. 그러니까 영세 전 문제부터 오는 잘못된 각인을 이기지 못하고, 계속 같은 문제에 빠지면서 실패하는 것이다. 이것이 삼손의 형편이었다. 오늘 우리는 반드시 각인을 오직 복음으로 바꾸어야 되겠다. 행1:1,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원색 복음이 각인되어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잘못된 각인이 치유되는 것이다. 잘못된 각인을 뽑아내는 길은, 말씀으로 복음을 붙잡는 것밖에 없다. 말씀으로 복음의 흐름을 따라가야 한다. 복음 중심으로 말씀을 묵상해서 각인을 치유하는 응답을 받는다.

(2) 삼손에게 실패가 반복되는 두 번째 원인은, 우상숭배의 뿌리를 못 바꿨다는 것이다. 이스라엘 전체가 복음을 놓치고 자꾸만 우상숭배로 간다. 그게 사사기다. 그러니까 행13장, 16장, 19장에 계속 빠지는 것이다. 짐승, 무속, 우상에 계속 빠진다. 하나님의 역사, 증거를 보고도, 거기에 순복하지 않고 또 다곤신전에 가서 비는 것을 반복한다. 하나님 나라 대신 흑암 나라의 문화가 뿌리내려져 있으니, 삼손의 행동 속에는 영적인 부분을 생각하고 인도받는 모습이 안 보이는 것이다. 거의 자기 감정대로, 자기 기분대로 움직였다.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간다는 게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비밀이 없는 것이다. 우리가 바른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상태 속에서 뿌리를 깊이 내려야만 한다. 역사적인 사실을 알고, 영적인 세계를 누리는 뿌리를 가지고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천사의 도움을 받으며, 사단의 계계를 꺾는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 이 귀한 것을 놔두고 다른 것을 하면 안 된다. 이 뿌리를 회복하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한다.

(3) 우리가 갱신해야 할 세 번째 것이 체질이다. 성령충만을 지속해서 누리는 체질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육신적이기 때문에 삼손처럼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죄성이고 연합함이다. 삼손은 거의 불신자 상태 체질 속에서 살았음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결혼을 언약적으로 하지 않고 육신의 정욕 쪽으로 계속 따라갔다. 음란이라는 영적 문제를 이기지 못했다. 거기에서 제일 큰 실패를 하게 되었다. 불신자 상태 여섯 가지의 체질을 못 바꾼 것이다. 우리가 이 모든 체질의 한계를 오늘 복음으로 전부 뒤집어야 되겠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성령충만

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이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이다. 모든 체질을 행1:8, 성령충만으로 바꾸시기 바란다. 우리가 바꾸자. 그러면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킬 것이다. 삼손이 전혀 못 했던 생명 살리는 진도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사실 삼손은 힘이 세어서, 평생 적군 죽이는 일만 하다가 죽었다. 필요한 일은 했지만, 더 큰 축복은 누리지 못하고, 많은 고생만 하다가 결국 자기도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사람 죽이다가 갔다. 원수 갚다가 갔다. 그것은 우리 인생이 할 일이 아니다. 그 반대 모습이 신약 본문에 나온다. 스테반은 어떻게 했나? 완전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진 사람이니까,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원수를 용서했다. 마지막 기도가 그것이었다.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기도를 했다. “나를 죽인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죽이는 일에 헌신한 것이 아니라, 살리는 일, 사는 일을 위해서 창조적인 일을 한 것이다. 안 되는 것을 이야기하기는 쉽다. 그러나 되게 하기는 쉽지 않다. 우리는 되게 하려고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다. ‘아, 저 부분을 도와와 되겠구나.’ 그래서 되게 해야 하는 것이다. 삼손의 죽음 뒤에 이스라엘은 영적인 혼란 시대가 왔다. 스테반의 죽음 뒤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엄청난 세계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났다. 우리의 인생이 스테반처럼 가치있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바란다.

결론을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우리 참사랑 가족들이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의 이유를 굳게 붙잡아야 한다. 당연한 것을 하면 된다. 학생들은 당연한 공부하면 된다. 필요한 것을 그러다가 하면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절대적인 상황 속에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회사가 안 되는가? 당연한 것을 다시 조사해 보아야 한다.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세상에도, 우리에게도 필요없는 것을 하면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 다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절대성 앞에 머리를 숙여야 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의 다른 점이다. 우리의 배경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각인, 뿌리, 체질을 변화시키는 응답을 받으시기 바란다. 이것을 어느 정도 해야 하나? 이 시대의 재앙을 막을 만큼 해야 한다. 한계는 없다. ‘나 한 사람이 바로 산다고 이 나라가 변화되겠다.’ 그렇지 않다. 개인의 실패를 막고, 가문의 저주를 막고, 현장의 재앙을 막는 진도자의 삶이, 오늘부터 우리에게 시작되기를 바란다. 삼손이 받은 능력을 회복하고, 삼손이 실패했던 각인, 뿌리, 체질을 뒤집어서, 삼손 시대에 왔던 재앙을 막는 증인으로, 우리가 서게 되기를 바란다. 한국교회에도 소망이 있다. 한국교회가 죽지 않았다. 참사랑교회가 그것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자.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성경은 말씀한다.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결단하면서 시작하면 된다. 이것이 일심이다. 그리스도로 일심 하시기 바란다. 기도 속에서 완전히 성령인도를 받으면 된다. 이것이 전심이다. 끝까지 성령충만이라는 영적 상태를 유지하면서 가면 된다. 이것이 지속이다. 어제 안 됐다고 낙심하지 마라. 오늘 될 수 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비밀을 누리는 훈련이 이제 중직자들에게서 시작되기를 바란다. 우리 중직자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집중진도신학원을 하자. 교역자들도 같이.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자. 뭐가 문제이며 어디에서 시작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질문하자. 그래서 다시 할 수 있는 것이 인간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 것이다. 램네티와 전 교인이 이 응답 속으로 들어 가라는 명령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장에 반드시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이 하나님은 영영하신 하나님이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시48:14의 말씀이다.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이번 주간과 또 우리 남은 생애를 승리하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밖에 지은 것이 없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려 주신 하나님, 삼손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도 일하시옵소서. 세상을 바꾸게 해 주옵소서. 교회의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꿀 수 있게 하옵소서. 역사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